

# 늘어나는 학계·사찰 연대, 재정 돌파구 될까?

## 대각사상연구·신홍사, 중앙승가대·선운사 등과 교류

최근 불교학계가 재정·인력적 한계 극복을 위한 연대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술단체간 연대를 넘어 사찰과의 연대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11월 4일 속초 신홍사(주지 우승)와 공동으로 신홍사 설립전서 '실악불교의 귀원정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대각사상연구원은 지난 4월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도 함께 공동세미나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는 서로 다른 문종임에도 활발한 사상·업적 비교 등이 이뤄졌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불교계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불교학회도 2014년 선운사와 월정사와 더불어 '적정, 한암 스님'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최근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이 11월 2일 중앙승가대에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연 1회 학술세미나와 특별강의의 시행 등을 협의해 향후 학술단체들과 사찰과의 연대 활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학술단체간 연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2015년 한국불교학회와 밀교문화연구원이 공동워크숍을 열고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한국불교사연구소도 12월 12일 세계불교사연구소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학계의 공동개최가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영세한 불교학계의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대부분 학회 회비납부율 10%대

"문중·사찰에 기댈 수 밖에 없어"

### 기금 모연·객관성 담보 장치 시급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대표적인 불교학회의 회비 납부율만 봐도 심각하다. 납부율이 30%대이면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학회가 회비 납부율이 10% 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재정적 한계로 인해 연대활동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



4월 25일 평창 월정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용성과 한암' 세미나.

히 사찰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고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인원 동원도 문제다. 학술 행사를 하면 회원 수가 많은 학술단체의 경우 학자들이 그나마 참석하지만, 회원 수가 적은 학술단체는 채 10명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학회 세미나 참석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세미나 공동개최는 참석인원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연대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 등과의 연대활동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맞춤형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학자는 학회든 자율성이 생명이라는 점이 간과되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사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란 것이다.

최 교수는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다. 학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기금 모연을 비롯해 일반 불자들의 학술단체 지원과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 밝은사람들, 11월 21일 제14회 학술연찬회 개최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회(원장 윤희조)는 11월 21일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를 주제로 제14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공정장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연찬회는 초기, 인도·티베트 대승, 중국대승·선, 서양철학·신학, 심리학 등 다섯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비' 또는 '지혜와 자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밝은사람들은 지난해 제13회 학술연찬회에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지혜'를 논의했고, 금번 '자비'는 이 지혜의 실천행에 대한 확장된 논의다.

구체적으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붓다

가 가르친 자비' △차상엽 금강대 교수의 '인도대승 및 티베트불교-고승의 구제로서의 자비' △상도선원 미산 스님의 '중국대승 및 선불교-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이정기 서울신학대 교수의 '서양철학 및 신학-현대사회에서 사랑 공동체의 의미'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심리학-자비는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가?' 등이 발표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흔히 지혜와 자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듯이, 지혜는 자비를 통해 실천되어야 그 빛을 더욱 발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교득락(離苦得樂)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마음은 되레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자비의 발현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 '불교 수행전통과 호흡' 세미나

### 불교학연구회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서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 L301호에서 '불교의 수행전통과 호흡'을 주제로 2015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초기불교부터 응용불교까지의 호흡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스이필원 동국대 교수의 '초기불교의 수행과 호흡' △김치은 진각대 교수의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의 입식졸관' △이기운 동국대 교수의 '천태

지관법문에서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증' △김재성 서울대 교수의 '테라와다불교의 호흡수행에 대하여' △김영택 위덕대 교수의 '진언과 호흡'이 발표된다.

논평자로 임승택 경북대 교수,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안성두 서울대 교수,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김은희 동국대 교수, 허일범 진각대 교수, 정성준 동국대 교수 등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승격

### '고려 심육나한도'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보물 제 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로 승격 지정예고했다.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혜공왕 2)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불상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지권인을 취하고 있는 비로자나불 형식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를 9세기 중엽으로 보았으나, 석남사지 불상으로 인해 8세기 중엽에 '지권인을 하고 장엄이 없는 여래형(如來形)의 비로자나불'이 성립됐음이 알려졌다.

이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두와 불신의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 수준이 높아 조형적으로 우수하다. 이미 불상의 가운데 받침돌 안에서 발견된 납석 사리호(蠟石舍利壺, 곱돌로 만든 항아리)가 1986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된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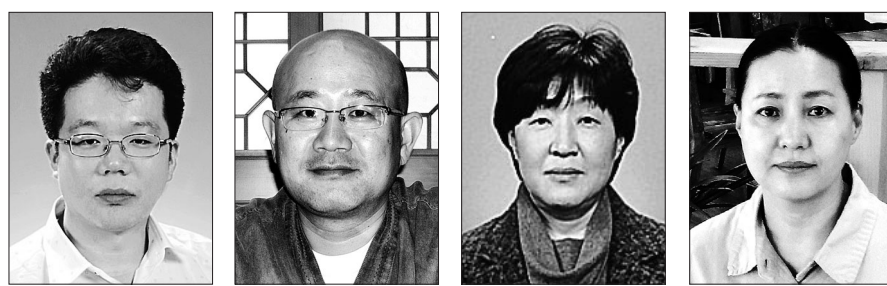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려 심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는 시자(侍者, 시종드는 사람)의 시봉(侍奉, 높은 사람을 모시고 받들)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목담채로 담담하게 담았다. 노덕현 기자

##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올해 지원자 발표

### 논문부문 박용주, 번역부문 김명우 등 3인...11월 11일 시상



박용주 김명우 구미석 유리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실시하는 제12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박사논문 부문에는 박용주 부산대 교수의 '중론-24장 18제에 대한 명제논리적 분석'이, 번역 부문에는 세친스님의 <유식이십론>을 공동번역 하는 김명우 동아대 강사와 구미석 강사, 부산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유리 씨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박용주 교수의 '중론' 논문에 대해 "중론의 사상적 문제를 현대철학적 의미로 풀어내고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존 국내 중론연구를 총정리하고 해외연구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번역부문에 대해서는 "바수반

두의 유식이십론은 유식학의 토대가 되는 중요 텍스트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번역되지 못했다"며 "국내 최초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제 주석을 함께 번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우 씨 등 3인은 범어 유식이십론과 이에 해당하는 티베트어, 규기스님의 유식이십론을 공동으로 번역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특히 "단독 번역이 아니고 공동번역이라는 점에서 번역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박사 논문 분야 5명, 번역 분야 10명이 지원했다. 제12회 불교소장학자 지원 사업 수여식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도난 '성보' 숨긴 사립박물관장 집행유예

도난당한 문화재 수 백 점을 몰래 보관하고 거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립박물관장 권 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10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은사 '영산회상도'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가 물건을 사들였을 2012년 당시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소계종은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 취득, 장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로 보아 지금 양형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은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경찰 신고 및 백서 발간 등을 통해 도난품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 취득 혐의가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동산문화재로 분류되는 문화재 수 백점을 타인 명의로 마련한 경기 성남시 소재 지하창고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권 씨는 은닉한 문화재는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좌상 등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성보 17점과 무덤 지석 379점 등으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